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5주일
제33권 22호(다해) 2013.4.28

[묵상]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 1669, Oil on canvas>

당신이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도 서로 사랑하렵니다.
당신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당신처럼 사랑함에 있사오니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당신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렵니다.

하오나 주님!
너무 힘듭니다.
당신이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저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힘듭니다.

삶의 여정 속에 만나게 되는
고단함과 무거움이
저희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당신께서 사랑하셨듯이
서로 잘 사랑해야함이
당신이 지고 따르라고 하신
저희들이 지고 가야할
진정한 십자가이옵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권순봉요안나, 김재순, 홍찬기 대건안드레아 & 심재순
	(생) 김준호 프란치스코 & 김씨니 클라라 가정,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 이용식 베드로, 권복남 모니카, 김금점 모니카, 이경용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윤준의 스킨라스티카,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김풍길 바오로, 엄익찬 안토니오, 정학순 발바라, 송공광 카타리나, 주용범 아브라함
	(생) 유정복 베네딕도, 이윤조 클라라, 오세원 아타나시오, 김규리 유스티나, 하예진 마리아 가정, 이성주 프란치스코 사제,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14,21-27

화답송 ①저의 임금인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저의 임금인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②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③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려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④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21,1-5

복 음 ①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②

복 음 요한(John) 13,31-33,34-35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69	162	163
봉헌	370	265	249
성체	Mighty to Save	298	281
파견	Prince of Peace	163	168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의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교회의 사명: 하느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만민을 향한 선교”의 필요성

95). 모든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면
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오늘날에도 만민을 향한
선교에 결연히 투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천명하였습
니다. 교회는 결코 그 사목 활동을 “유지”의 사목에, 이미 그
리스도의 복음을 알고있는 이들을 위한 사목에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선교사 파견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성숙했다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부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
이 필요로 하는 구원의 진리라는 인식을 강하게 표현하였습니
다.

그래서 선포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박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도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 성령의 힘으로 모든이를 향해 가야 하고(1코
린 2,5 참조)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와 자유를 예언자적으
로 옹호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모든 이에게
구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의무가 있다고 느낍니다.(로마
1,14 참조)

선포와 새로운 복음화

96).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바오로 6세 교황께서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 Nuntiandi)에서 밝히셨던 노
선을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백성 전체
를 위한 새로운 선교파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셨습니다. 제삼
천년기를 맞는 이때에,아직도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민족
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에게 하느님
의 말씀을 설득력 있게 다시 선포함으로써 복음의 힘을 구체
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충분히 복음화되지 않았
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전에 신앙과 성소가 풍부했던 민족
들이 세속화된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
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저의 선임자가 절실히 느꼈던 새 복음화의 필요성은
두려움 없이, 하느님 말씀의 효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충실하심을 믿으며 지
칠 줄 모르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모든 그리스도
인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매력을 새로이 발견하도록 초
대합니다.

<◆계속>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오래전 선배 신부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당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활동하시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침 일찍부터 매일같이 새벽미사에 오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당의 여러 봉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성당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살아 있는 성녀'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할머니의 장례미사를 치르고 난 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성당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만큼 열성적인 신앙인이었으니 며느님도 그분의 뜻을 받들어 예비자 교리에 나오세요."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흔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신부님,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싫습니다. 성당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당에 나가게 되면 죽어서 천국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텐데, 생각만해도 정말 싫습니다." 집 밖에서는 모든 이의 귀감이 되었던 그 할머니가 정작 함께 살고 있던 며느리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행위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은 없지만, 이것만큼 실천이 어려운 말씀도 없습니다. 마음과 증오에 빠지기 쉬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 입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

라, 행동으로 보여질 때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1요한 3,18)

말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며 거짓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의 마음과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어떤 사랑의 행위라도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강요되는 계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이 우리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삶,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으로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을 한번 쯤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는 싫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태아와 말기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문화는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자유 개념을 드러내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강자의 자유가 되고 맙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19항 참조 -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사도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송현식 바오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권경아 요세피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성모의밤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미사

- 일시 : 5월3일(금) 오후 7시30분
- 준비물 : 초(판매), 묵주, 미사준비
- 꽃봉헌 : 제단체 및 레지오마리아 각 프레스디움
- 가능한 한복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 * 이 날 금요일 아침미사가 없으며
5월4일 첫토요일 성모신심 미사가 없습니다.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4월27일(토) 오후 6시 4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리스천
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김규리 유스티나
● 김학연 소피아 ● 박정현 베네딕도 ● 김현범 펠릭스

◆ 양업회 vs 대건회 친선 탁구대회

- 일시 : 오늘 주일(28일) 오후 3시30분, 강당
- 팀구성 : 양업회 7명 + 이장환 신부님(8명)
대건회 7명 + 이성주 신부님(8명)
- 경기방식 : 단식 8게임, 복식 4게임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행복가득 서천김' 절찬리에 판매중

대전교구 천주교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만든 건강김으로
황토소금으로 구워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이번 주일(특전미사 포함)까지 판매합니다.

- 가격 : 6장x10봉지에 \$10
- 문의 : 정동호 하상바로 ☎(310)780-9055

◆ 5월 성시간 : 2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있습니다.

◆ 본당 ME 세어링

- 일시 : 5월12일(주일) 오후 6시30분, 강당
- 문의 : 대표부부 정 하상바로 & 율리아 ☎(310)780-9055

◆ 백삼위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는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의 신앙을
쇄신하고, 특히 본당 견진성사(6월23일)대상자는 의무적으

◆ 2013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회장 :
이재정 사도요한)가 선발하는 2013~14연도 장학생을 다
음과 같이 신청받습니다.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로서, 교회봉사를 하며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4월 28일~5월 31일 * 신청서 : 사무실
- 장학금 지급 : 2013년 8월1일 이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로 참석해야하는 교육입니다.

- 일정 : 6월 6일(목)~9일(주일)
- 강사 : 김세을 요셉 신부
- 영적준비 : 성경읽기(루카복음, 사도행전 19,1-10,
로마서 8장, 코린토1서 11,12-14)와
묵주의 9일기도(5월28일~6월5일)
- 신청마감 : 5월26일 * 참가비 : \$30
- 문의 : 강혜원 아녜스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 명문대학 및 명문미대 진학 세미나('비전21')

- 일시 : 5월12일(주일) 오후 2시 자모회 모임후 회의실
- 대상 :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문의 : 장정진 베로니카 ☎(310)713-7779

◆ 한국의방선교회 멕시코 선교지 체험 참가자 모집

- 일정 : 7월16일(화)~23일(화) * 장소 : 멕시코 캄페체
- 지도 : 나영호 베드로 신부(한국의방선교회후원국장)
- 참가비 : \$1,250(왕복항공료 + 현지경비 포함)
- 주관 : 한국의방선교회 한국본부
- 문의 : 오영섭 스테파노 백삼위성당 후원회장 / 동후원회
미주재단 사무차장 ☎(310)922-1502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4월28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 주일학교(12학년 스파게티)
- 5월5일(주일) : 양업회(소고기 국밥 \$3) 점심의에 족발,
빈대떡, 도토리묵무침 등을 판매합니다.
* 주일학교(11학년 김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오상 권태만 금동군 김교복 김대우 김정엽 김찬구 박근식 박기돈 박진수 서성용 서재원 신순철 안민수 양영관 오수인 육근주 이경태 이근태 이영희 이재용 임 순 장정진 주영석 최득순 최진수 한장환 한창주 한혁수 송마이클	합계 : \$3,800
주일미사헌금 : \$2,823		
성전헌금	권오상 권태만 금동군 김교복 김대우 김정엽 김찬구 서성용 신순철 안민수 양영관 오수인 이경태 이근태 이영희 이일길 임 순 장정진 최득순 최진수 한장환 한창주 한혁수 송마이클	합계 : \$2,330
주보광고후원 : \$250		

공지사항

◆ 첫영성체 교리반/부모님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28일) :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장소 : 2학년교실(성당2층)
- 대상 : 2학년학생과 부모님, 그의 첫영성체교리학생과 부모님
- 비용 : \$20
- 첫영성체 예식 : 6월2일(주일) 낮 11시 미사중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80-8895

◆ 고등부 견진반 LA주교좌 성당 방문 및 미사참례

- 날짜 : 오늘 주일(28일) 오전 8시~오후 4시
- 대상 : 견진교리대상학생 필수
- 장소 : LA 다운타운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 고등부(10학년) 견진성사

- 날짜 : 5월18일(토) 오전 10시
- 리허설 : 5월10일(금) 오후 7시30분
- 참회예절 : 5월17일 오후 7시
- 장소 : 성 마가렛 매리 본당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교리 교사 ☎(310)744-5878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시 : 6월28일(금)~30일(주일)
- 장소 :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 참가비 : \$50(5월26일 마감, 6월2일부터 \$70, no refund)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코디 ☎(310)709-3343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5월19일 마감, 5월26일부터 \$250)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남가주 소식

◆ 남가주 M.E. 제12회 골프잔치

- 일시 : 5월4일(토) 오후 1시, 샷건 플레이
- 장소 : 웨스트리지 골프클럽, 라하브라
- 대상 : ME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 참가비 : \$100(점심과 저녁식사, 푸짐한 상품)
- 신청 : 본당 ME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310)780-9055

◆ 2013 FIAT 장학금 프로그램 신청

- 신청마감 : 5월31일
- 대상 : 북미주거주 한인가톨릭학생(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
- 본당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5/17(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4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박래경 헨리카 617-3568 5/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4월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딱하신(?) 목자 우리 때문에...

부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성가가 있다. 「가톨릭가」 18번인데,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나이다.”라는 노랫말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 좋은 성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은 늘 응답만 하시는 분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주님 친히 먼저 그리고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건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들으며 잘 응답하고 있는가?’하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응답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을 ‘딱하신(?) 목자’로 만드는 것 같아 죄송스런 마음이 들곤 한다.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기쁜 응답을 내용으로 하는 성가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 또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렇게 응답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착한 목자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聖召)을 생각한다. 주님 포도밭의 일꾼으로 초대받은 많은 젊은이가 주님의 부르심, 즉 ‘당신 십자가 신비를 삶으로 본받기’를 바라시는 귀한 초대에 ‘예’로써 응답하길 기도하는 날이다. 또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신앙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에 응답하는 삶을 성실히 지속해 나가길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다.

복음 말씀에서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요한 10, 27)고 말씀하신다. 주님 목장의 양 떼인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내 소리는 줄이고 귀와 마음을 열고서 주님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모두 귀하게 부르셨다. 그러기에 세상 안에서 각자가 해야 할 ‘소명’이 있는 것이다. 자신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이의 성소(자리, 역할, 재능)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바라신대로, 격려와 칭찬, 섬김과 사랑의 분위기가 넘쳐나야 할 것이다. 성소 주일을 맞으며, 나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계속 응답해주시기만을 기대하는 우매함을 떨치고 싶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1사무 3,9)를 되뇌며,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우들을 향해 간절히 청하고 싶다.

◆윤용선 바오로 신부 / 부산교구 용호성당 주임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우리 삶의 최대의 두려움! 우리가 풀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죽음입니다. 불행하게도 죽음은 어느 누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명에 종지부를 찍어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종착역이 죽음에 던지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지금의 생명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 ‘어떻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상상력과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으로, 신앙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자연의 질서 속에 심어놓으신 지혜를 통해 보다 높은 생명의 단계를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땅에서 뽑혀 동물에게 먹히는 변화를 거쳐 활동적인 생명에 결합하고, 동물은 자신의 육신을 인간에게 먹히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 이성적이고 지적인 생명과 결합하는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생명은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시키지만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에 결합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식물이나 동물보다 훨씬 고귀한 생명과 하느님의 모상을 받았습시다. 죽음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7,3)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 옮겨갑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성체성사를 통해 부활하신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며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십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994항)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삶이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지상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지니고 땅에서 생애를 보내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관통할 때 우리는 생의 기쁨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

◆자료 :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